

그는 왜 '절하는 남자'만 그럴까



‘관계의 감각’

무각사 로터리갤러리 22일까지 문영민 ‘관계의 감각’展

우리는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큰절을 올린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하기도 한다. 결혼식장에서 부부는 맞절을 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인다.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작가 문영민(48) 미국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주립대 부교수는 지난 3년간 ‘양복을 입고 절하는 남자의 뒷모습’만을 그려왔다.

그는 오는 22일까지 광주 무각사 로터리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 ‘관계의 감각’(Some Sense of Order)전에서도 절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 21점으로 전시장을 채웠다.

작가를 만나기에 앞서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작가는 이 작품을 고집할까’였다.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작품 속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흐느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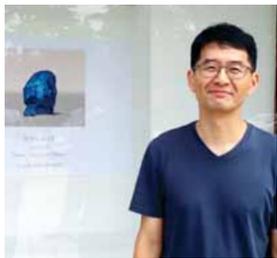
문 교수는 “절을 한다는 행위는 꼭 죽은 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기 목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작품을 시작하기 전 7년 동안 붓을 잡지 못했다. “상품화된 그림에 대한 환멸로 인해 그림을 때려 치웠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우연히 대학교 3학년 때 그랬던 제사 그림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당시 오랜 외국생활로 제 정체성을 탐구하던 시기에 그랬던 작품이었죠. 시간이 흘러 그 작품 사진을 다시 마주하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에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가의 뇌리에는 유년시절 제사와 엄

**“절은 애도·기억의 행위
보이지 않는 교감 중요”
아내 외삼촌 그린 21점**



숙하게 절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각인돼 있었다. 한 장의 작품 사진이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다. 또 그것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애도를 표하는 보편적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는 왜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느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반복합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모두 반복이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요. 절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치 절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가다듬듯이 작품을 그려요. 매일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더 나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품을 마주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그림에 절을 올리는 대상이 생략돼 있다는 것이었다. 또 언뜻 모두

같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배경과 색감이 다르고, 옷의 주름이나 남성의 손동작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제사를 올려도 대상, 즉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을 올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염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인 교감일 수도 있죠. 때문에 대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외적인 면에 불과해요. 저는 이 연작을 ‘실패를 전제로 하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모습만을 그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성은 아내의 외삼촌이다. 그는 작품을 위해 제사 때마다 사진을 찍었다. 다만 익숙한 분위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다. 뒷모습을 그린 이유도 그렇다. 특히 외삼촌을 찍은 사진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기운과 절절함이 느껴져 작품으로 이미지를 끌어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는 문 교수에게도 영향을 줬다. 작가로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고, 애도의 행위가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애도와 기억하는 행위를 가볍고 담담하게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 출신인 문 교수는 1984년 캐나다 로이민을 떠나 캐나다 온타리오 칼리지 오브 아트와 미국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디 아츠를 졸업했다. 하버드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수상했다. 문 교수는 1997년 광주비엔날레 코디네이터로 참여, 광주와도 인연이 있다. 문의 062-383-007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4일 광주 금남공원에서 진행된 광주시립극단의 ‘전우치-판도라의 책’ 공연 모습. (광주시립극단 제공)

웃고 즐기느라 무더위 잊은 금남공원의 밤

광주시립극단 15일까지 연극 ‘전우치-판도라의 책’ 공연

‘가족과 함께 연극 보며 도심 속 피서.’ 지난 4일 밤 9시 광주 금남공원은 왁자지껄했다. 연극 ‘전우치-판도라의 책’ 공연 현장이다. 함께 박수치고 웃으며 즐긴 1시간에 이르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배우들과 기념 촬영을 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부모와 함께 관람 온 꼬마 관객들이 무척 즐거워했다.

아이들과 기념 사진을 찍던 김정아(40·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방학을 맞은 아이와 함께 관람했는데 흥미로운 내용에 아이가 무척 좋아했다”며 “내년 애도 이곳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의 여름 공연 브랜드 가족극 ‘전우치’가 시즌 세번째 작품을 공연중이다. 오는 15일

(일·월요일 공연 없음)까지 오후 8시 금남공원 야외무대.

이번 작품은 조선시대 전우치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현재의 여고생 이화의 좌충우돌 외교 되치 모험을 그리고 있다.

전우치 시리즈는 고전소설 전우치전을 모티브로 연기, 마술, 군무, 음악을 가미한 판타지액션 연극이다. 특히 전통무술 택견을 기본으로 아크로바틱 등을 접목한 액션, 무술과 춤을 결합한 군무가 인상적이다.

또 ‘구름을 타고 바람을 가르는 도사 전우치’라는 노랫말로 이뤄진 주제곡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곡이며 새롭게 작·편곡한 음악들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넓은 공연 공간을

활용한 무대 연출도 흥미롭다.

시즌 1에서 주역을 맡았던 이승현씨가 주인공 전우치를 맡았고, 이화 역에는 최유정, 판도라 역에는 이명덕, 초랭이 역에는 정일행 등이 출연한다.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전우치 캐릭터 부채를 무료로 증정하며 금·토요일에는 보해와 함께 매실맛 플럼 와인 무료 시음회를 마련한다. 또 광주시 동구청과 연계해 다문화가정 자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청,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전우치-판도라의 책’은 오는 31일 광주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2015국립극단 페스티벌에도 참가한다. 우선시 공연 취소.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박물관 사진공모전

광주박물관 9월30일까지 접수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10일부터 9월30일까지 ‘나의 사진, 우리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2015년 제1회 국립광주박물관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전경, 유물, 문화행사 등 박물관을 주제로 한 작품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자유롭게 촬영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할 사진은 최소 2400픽셀 이상, 용량 3~10MB의 디지털 사진이어야 한다. 이메일 접수(gimuseum025@naver.com)로만 출품이 가능하다. 응모는 1인당 3점 이내이다. 수상작 발표는 10월7일이며 수상자 개별통보와 함께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중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중앙홀에 전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광고,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2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국 소설 미래 작가는?

인터넷 서점 예스24 네티즌 투표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오는 8월 24일까지 ‘한국 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뽑는 네티즌 투표를 실시한다.

‘한국 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선정은 2000년 이후 등단한 작가 또는 등단, 미등단 여부를 떠나 2000년 이후 첫 소설집·장편소설을 출간한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후보 작가는 소설을 출간하는 문학 출판사 31곳의 추천을 토대로 선별했으며,곽재식, 김솔, 김애란, 박민규, 손보미, 정용준, 천명관, 황정은 등 총 47명의 작가가 후보에 올랐다.

이와 함께 예스24는 100명의 독자(50명 추천, 동반 1인)를 무료로 초청, 소설가와 함께하는 ‘2015 가을 문학캠프’를 마련한다. 오는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될 ‘2015 가을 문학캠프’에는 ‘한국 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로 뽑힌 작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 동산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가림동 ● 한화성명 ● 구한미소핑 ● 동부소방서 ● 북경랑 한의원

진료문의 (062) 227-7575